

러시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3. 4.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0
V. 종합의견	13

I. 일반개황

면적	17,098 천 km ²	GDP	19,700억 달러 ('12)
인구	1억 4,283만 명 ('12)	1인당 GDP	13,790달러 ('12)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연방공화제)	통화단위	Russian Ruble(RUB)
대외정책	미국의 일방독주 견제, 자국 역할 증대 방안 모색	환율(달러당)	30.84

- 세계 최대의 영토와 풍부한 천연자원, 세계적인 과학기술력 및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한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국가임.
- 2000년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국제유가의 상승에 힘입어 2008년까지 연평균 7%대의 높은 경제성장세를 기록했음. 그러나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인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기 침체로 BRICs 국가 중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나, 2010년 이후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3.5~4.3%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하고 있음.
- 2012년 5월 푸틴 대통령 취임 후 미국 및 EU와의 관계는 다소 악화되는 양상이나 미국의 영향력 확대 견제 등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관계는 강화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2010~12년 경제성장률은 3.4~4.3% 수준 지속, 총투자를 상승추세 시현

- 2010년 러시아 경제는 유가상승, 정부의 부양정책 효과 가시화와 내수회복에 힘입어 4.3%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으며, 2011년에는 실질임금 상승, 농산물 풍작, 2011년 12월 총선 및 2012년 3월 대선을 앞둔 경기부양책 확대 등에 따라 전년과 동일한 4.3%의 경제성장세를 시현함.
- 2012년에는 유로존 등 세계 경기침체, 하계 가뭄에 따른 농업부문 부진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다소 낮아진 3.4%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GDP 대비 국내총투자 비율은 경기회복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09년의 18.6% 수준에서 2012년 25.1% 수준으로 상승함.

* 2011년 1인당 GDP가 12,990달러로 상승하여 국민소득 수준이 크게 개선되어 지표상으로는 고소득국(HIC)으로 분류(세계은행 기준)됨.

□ 201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5% 대로 둔화

- 201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실질임금 상승 및 실업률 감소에 따른 내수회복과 사회보장성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연중 8.4%를 기록함.
- 2012년 상반기에는 루블화 강세로 인한 수입물가 하락, 식료품가격 안정 지속, 공공요금 인상 연기 등으로 1~2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각각 3.9%, 3.8%로 크게 둔화되었으나, 하반기에는 공공요금 인상, 농산물 흉작 등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5.1% 수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재정수지는 소폭의 흑자 유지

- 러시아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 및 유가 하락 등으로 2009년 GDP 대비 -5.9%, 2010년 -4.0% 수준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함.

- 2011년에는 우랄산 원유가격이 평균 105.7달러/배럴의 높은 수준을 기록한 데 따른 재정수입 증가로 재정수지가 GDP 대비 0.8% 수준의 소폭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2012년에도 0.10% 수준의 흑자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됨.

* 우랄산 원유가격 추이(U\$/배럴, 연평균): 41.8('08) → 76.6('09) → 92.2('10) → 105.7('11) → 110.8('12)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e
경제성장률	5.3	-7.8	4.3	4.3	3.4
재정수지 / GDP	4.1	-5.9	-4.0	0.8	0.1
소비자물가상승률	14.1	11.7	6.9	8.4	5.1

자료: IMF 및 EIU.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한 경제구조 형성

- 러시아 경제는 에너지(원유 및 천연가스)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국제유가의 등락에 따라 경제전반이 큰 영향을 받는 구조임.
 - 에너지 산업의존도(2011년 기준): 총수출의 59%, GDP의 18%, 재정수입의 50%
- 2010년 이후 고유가로 에너지 수출 및 재정수입이 증가해 경기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향후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취약한 경제구조 개선이 필요함.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GDP 기준 세계 9위의 경제대국

- 러시아는 원유, 천연가스, 석탄, 철광석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도 1억 4천만 명에 달해 내수기반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원유(2011년 말 기준): 확인매장량(882억 배럴) 세계 8위,
생산량(일일 1,028만 배럴) 세계 2위
- 천연가스(2011년 말 기준): 확인매장량(44.6조 m³) 세계 1위,
생산량(연간 6,070억 m³) 세계 2위

다. 정책성과

□ 산업구조 다양화를 위한 경제현대화 정책 추진

-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 정부는 과도한 원자재 분야 의존, 산업경쟁력 부족 등에 따른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산업생산의 현대화 및 기술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경제현대화 5대 전략산업: 에너지효율화(신연료 개발 등), 원자력기술, 우주기술, 의료기술(진단장비 및 의약품 포함), 전략정보기술(슈퍼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
- 러시아 정부는 R&D에 종사하는 국내외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모스크바 외곽의 스킨코보(Skolkovo) 지역에 첨단기술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2011년 착공, 종합단지 조성을 위해 3~7년 소요 예상).
- 파격적인 세제혜택(향후 10년간 지대, 부가가치세, 수익세 면제)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지적재산권 보호, 부정부패 관행 및 복잡한 법규 등으로 투자환경이 열악하고 첨단산업단지 조성 관련 인프라 구축이 미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됨.

- 2011년 3월 메드베데프 정부는 경제현대화 정책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10대 조치를 시행함.
 - 가즈프롬 등 17개 주요 국영기업에서 총 8명의 부총리, 장관이 겸직하고 있는 이사직을 독립이사로 교체하고 민영화 일정을 확정하는 등 국영기업과 일반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혁, 부정부패 척결 관련 조치 및 기업의 사회보험부담률 인하 등이 주요 내용에 포함됨.

□ 러시아 정부, 대규모 국영기업 정부지분 매각계획 차질 예상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2011년 6월 인프라부문과 국가안보와 직결된 분야를 제외한 모든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지분을 축소하는 민영화 추진일정을 수립하도록 지시함.
 - 2011년 7월과 10월에 스베르뱅크(Sberbank), VTB(Vneshtorgbank), 로젤크호즈뱅크(Rosselkhozbank) 등의 국영은행, 로스네프트(Rosneft), 루시드로(RusHydro), 소브콤플로트(Sovkomflot) 등 핵심 국영기업 등 11개 주요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되, 정부지분 50%+1주는 유지하는 정부지분 매각(약 200억~300억 달러 규모 추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2012년 5월 석유 및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정부지분 매각에 제한적인 입장을 표명하였고, 6월 발표된 새로운 국영기업 민영화 방안에는 러시아 최대 국영 석유기업인 로스네프트(Rosneft) 등 석유 및 자원 관련 기업의 정부지분 매각 계획이 제외된 바 있음.
 - 정부는 2013년에 러시아 2대 은행인 VTB 은행의 일부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며 다이아몬드 채굴회사인 Alrosa, Sibir Airlines, 지역 전력회사 TGK-5의 지분을 각각 7~14%, 25.5%, 25.1% 매각할 예정임.

3. 대외거래

□ 상품수출 호조 등 수출증가세 지속

- 2009년에는 총수출증가율이 -35.3%로 크게 위축된 이후 2010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2011년에는 유가 상승에 따라 상품수출이 증가(전년 대비 30.0%)하면서 총수출증가율은 28.0%를 기록하였음.

- 2012년 상품수출이 전년 대비 3.9% 증가하는 등 2012년에도 총수출은 3.4%의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정됨.

□ 2012년 경상수지 흑자 소폭 축소

- 러시아의 경상수지는 주요 수출품인 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등의 수출가격 상승으로 인해 GDP 대비 2010년 4.8%, 2011년 5.4% 수준의 흑자를 기록함.
- 2011년 고유가 지속에 따라 상품수지 흑자가 전년의 1,520억 달러에서 1,982억 달러로 확대된 데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는 711억 달러에서 988억 달러로 증가함. 2012년에는 수입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축소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 대비 4.5% 수준인 893억 달러로 소폭 감소된 것으로 추정됨.
- 반면, 러시아의 열악한 투자환경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자본 유출이 지속되어 자본수지 적자가 2010년 262억 달러에서 2011년 760억 달러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의 10개월 분 이상 유지

- 2009년 이후 외환보유액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1년 말 외환보유액 규모도 4,412억 달러로 월평균수입액의 10개월 분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 2012년에도 수출 증대 등에 힘입어 외환보유액은 4,731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2011년 이후 루블화 가치의 변동폭 확대

- 2009년 2월 초 미달러 대비 36.16루블까지 하락했던 루블화 가치는 유가 상승 및 외자 유입에 힘입어 2010년 중 미달러 대비 30.37루블 수준으로 강세를 유지했으나, 2011년 하반기 이후에는 약세로 전환되며 2011년 중 미달러 대비 27.38~32.31루블로 변동폭이 커졌음. 2012년에도 미달러 대비 루블화 가치는 29.23~33.69를 기록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됨.
- 연평균 환율: 24.85('08)→31.74('09)→30.37('10)→29.38('11)→30.84('12)

□ 2012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

- 2011년 총외채잔액은 5,364억 달러 수준으로 누적되었으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GDP 증가로 오히려 22.8%로 개선됨. 2012년 총외채잔액 규모는 전년보다 증가한 5,843억 달러 수준으로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23.0%로 추정됨.

- 총외채잔액/GDP 추이(%): 30.5('09) → 25.9('10) → 22.8('11) → 23.0('12)

□ DSR은 10% 내외 수준으로 외채상환부담의 점진적 완화 추세

- 2009년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4.9%를 기록한 이후 수출증가세 지속으로 2011년에는 9.7%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2012년에는 10.7%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외채상환부담은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 추이: 14.9('09)→12.8('10)→9.7('11)→10.7('12)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e
경 상 수 지	103,530	48,605	71,080	98,834	89,282
경 상 수 지 / GDP	6.2	4.0	4.8	5.4	4.5
상 품 수 지	179,742	111,585	151,996	198,180	189,663
수 출	471,603	303,388	400,630	522,011	540,637
수 입	291,861	191,803	248,634	323,831	350,974
외 환 보 유 액	410,695	405,825	432,949	441,162	473,110
총 외 채 잔 액	480,541	462,976	479,914	536,440	584,274
총 외 채 잔 액 / GDP	24.3	30.5	25.9	22.8	23.0
D S R	11.4	14.9	12.8	9.7	10.7

자료: IMF 및 EIU.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2011년 12월 총선에서 여당은 과반의석 간신히 유지

- 2011년 12월 실시된 총선에서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은 450석 중 238석을 차지하며 과반의석을 간신히 유지했으나 2007년에 비해 77석이 줄었고, 반면 공산당, 정의당 및 자유민주당은 모두 추가 의석 확보에 성공하며 세력을 확장함.

□ 푸틴, 대통령 3선에 성공했으나 장기집권에 대한 불만 잠재

- 2012년 3월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전 총리가 당선되었고 5월 대통령에 취임하여 향후 6년간(2012~18년) 재임할 예정이며, 취임 후 푸틴은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을 총리로 임명하여 정부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음.
- 부정선거 의혹으로 항의 시위 등 다소 혼란이 있었으나, 푸틴의 정권장악에는 큰 영향이 없었으며 푸틴의 대통령 3선 성공으로 국정을 장악했으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2000년 대통령 당선 후 연임시 총 20년 집권 가능)가 커지고 있음.
- 2011년 12월 총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되던 푸틴 집권에 반대하는 시위가 2012년 6월 이후 잠잠해진 상태이나 정치사회 전반의 부정부패에 대한 불만이 표출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실업률 안정으로 사회불안 가능성은 낮은 상태

- 2000년대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계층간, 지역간 빈부격차가 확대되었으며, 특히 2009년에는 금융위기로 인해 실업률이 8.4%까지 상승했으나 2010년 실업률은 7.5% 수준으로 하락했고 2011년과 2012년에도 각각 6.6%와 6.2%로 하락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2009년 이후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연금, 공공부문 급여 및 실업자보호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수준을 유지하였으며 2012년에는 관련 부문 예산을 확대하여 경제문제로 인한 대규모 사회불안 가능성은 낮은 상태임.

□ 국지적인 소규모 소요사태 발생

- 2008년 이후 2010년 3월 모스크바 지하철테러, 2011년 1월 모스크바 공항 테러, 2012년 5월 다케스탄 자살폭탄테러 등 사회소요가 끊이지 않고 있음. 러시아 정부는 테러조직에 대한 엄정한 처리방침을 유지하는 한편, 체첸 등 북코카서스 지역의 경제여건 개선을 통해 반정부세력을 무력화하는 등 강온 양면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3. 국제관계

□ 미국, EU 등 서방국가와의 관계 악화 우려

-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러시아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협력하는 한편, 미국은 러시아의 WTO 가입을 지지하는 등 부시 대통령 시절 냉각되었던 양국관계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푸틴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의 관계가 다시 악화될 우려가 있음.
- EU와도 공동 관심사인 에너지안보, 과격주의 세력 척결 및 핵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이란 원유수입 금지 및 시리아 내전 사태 해결 등과 관련하여 이견을 나타내고 있음.

□ 중국과의 협력 강화

-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공동의 목적하에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러시아는 특히 아시아 지역까지 에너지 수출시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중국과의 관계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양국간 교역규모는 2011년 779억 달러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으며, 2012년 880억 달러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감.

□ CIS 지역에서의 영향력 회복 모색

- 구소련 국가에 대해서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및 유라시아경제공동체(EEC)를 중심으로 안보 및 경제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원유, 가스 등 에너지자원을 이용하여 역내에서의 영향력 회복을 모색하고 있음.
- 2009년 가스대금을 둘러싼 분쟁을 겪었던 우크라이나와는 친러성향의 야누코비치 대통령 집권(2010년 2월)에 따라 관계가 다소 개선되었으며, 2010년 7월 발효된 벨로루시와 카자흐스탄과의 관세동맹을 통한 역내 경제 통합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2005년 IMF 차관 조기상환

- 2005년 1월 IMF 대기성차관 33억 달러를 조기 상환했으며, 2005~06년 2년에 걸쳐 파리클럽채무 430억 달러도 전액 조기상환함에 따라 IMF 등으로부터 추가차관을 받을 가능성은 낮음.

□ OECD 회원국의 ECA에 대한 중장기 연체비중 1% 수준

- 2012년 9월 기준 OECD 회원국의 ECA 인수승인잔액은 단기 53.8억 달러, 중장기 408.5억 달러이며, 이 중 단기 140만 달러(0.03%) 및 중장기 4억 달러(0.98%)가 연체 중으로 중장기 연체금액 중 1.9억 달러는 회수불능 상태임.

2. 국제시장평가

□ S&P 등 주요 신용평가기관, 러시아 신용등급 유지

- 2009년 하반기 이후 러시아 경제가 점진적인 회복세를 나타냄에 따라, S&P는 2009년 12월 신용등급전망을 기존의 부정적(BBB/Negative)에서

안정적(BBB/Stable)으로 조정했고, Moody's는 2008년 12월 전망을 긍정적(Baa1/Positive)에서 안정적(Baa1/Stable)으로 조정한 후 등급 및 전망을 유지((Baa1/Stable)하고 있음.

- Fitch는 2010년 1월 등급전망을 부정적(BBB/Negative)에서 안정적(BBB/Stable)으로 조정한 후 9월에 긍정적(BBB/Positive)으로 상향조정 하였으나, 2012년 1월 러시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세계경제 전망이 악화된 이유로 등급전망을 안정적(BBB/Stable)으로 하향조정했음.
- OECD는 2009년 10월 러시아의 국가신용등급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 등급 하향 조정한 후 2010년 1월 국가위험도 평가회의에서도 이를 유지했으나 2011년 1월 개최된 OECD 국가위험도 평가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지표 개선, 외국인투자유입 지속, 양호한 외채현황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조정함.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C1 (2013. 4)	C1 (2012. 6)
OECD	3등급 (2013. 1)	3등급 (2012. 1)
S&P	BBB (2008.12)	BBB+ (2006. 9)
Moody's	Baa1 (2008. 7)	Baa2 (2008. 3)
Fitch	BBB (2009. 2)	BBB+ (2006. 7)

□ 주요 ECA 인수태도

- 미국 EXIM: 제한적 인수가능
- 영국 ECGD: 중단기 인수가능
- 독일 Hermes: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90. 9. 30 (북한과는 1948. 10. 12)

□ 주요협정

- 원자력협력협정(이상 '99), 에너지분야협력협정('00), 관광협정('01), 항공협정('03), 우주기술협력협정, 가스산업협정('06), 비자협정('10), 해상운송협정('11)

□ 양국간 교역규모 증가세 지속

- 러시아와 한국은 1990년 9월 국교를 수립한 이후 양국간 경제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2009년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2010년 중 177억 달러 규모를 기록했고 2011년 교역규모는 212억 달러(수출 103억 달러, 수입 10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2년에는 225억 달러(수출 111억 달러, 수입 114억 달러)를 기록함(우리나라는 대 러시아 무역수지 적자 지속).

* 러시아: 우리나라의 10위 수출상대국이자 12위 수입상대국(2012년 기준)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및 부품, 합성수지, 건설광산기계, 무선통신기기 등이며 수입품목은 원유, 석유제품, 석탄, 알루미늄 및 천연가스 등 1차 산품임.

<표 4> 한·러시아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10	2011	2012	주요품목
수출	7,760	10,305	11,097	자동차 및 부품, 합성수지, 건설광산기계, 무선통신기기
수입	9,899	10,852	11,354	원유, 석유제품, 석탄, 알루미늄, 천연가스

자료: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직접투자 2012년 소폭 회복

-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직접투자금액은 2006~09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0년 연간 투자액은 3.3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23% 감소함. 2011년에도 연간투자액은 크게 감소해 9,787만 달러에 그쳤으나 2012년에는 1.0억 달러로 소폭 회복됨.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직접투자 누계액은 2012년 12월 말 기준 19.9억 달러(450건) 수준임.

□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기대

- 2010년 한러 수교 20주년을 맞이해 9월과 11월 두차례의 정상회담 외에도 한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등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협력분야 발굴과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는 전기가 마련되었음.
- 2011년에도 10월 한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11월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내실화와 러시아 경제현대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활성화방안을 모색했으며, 특히, 2012년 9월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은 남-북-러가스관 사업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함.

V. 종합 의견

- 러시아는 2009년 하반기 이후 고유가에 힘입어 점진적인 경기회복세를 나타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고소득국 수준으로 상승함. 최근 10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0%를 상회하였으나 2012년 5% 수준으로 둔화되었고 재정수지도 2011년 이후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러시아의 경제성장을 또한 2010년 이후 3.5~4.3% 수준의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음.
- 원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수출이 총수출의 59%를 차지하는 등 유가의 향방에 경제가 좌우되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산업구조 다양화를 위한 경제현대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2012년 8월 WTO 가입으로 시장 개방을 가속화함.

- 2011년 12월 총선에서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은 지난 총선 대비 77석을 잃었으나 과반의석은 간신히 유지했음. 2012년 3월 푸틴 대통령이 3선에 성공하여 정치적 불안정성이 야기될 가능성은 낮으나 장기집권에 따른 민주주의의 후퇴가 우려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사회적 불만이 잠재되어 있음. 푸틴 대통령 취임 후 미국 및 EU와의 관계는 다소 악화되는 양상이나 중국과의 협력관계는 강화되고 있음.

- OECD는 2011년 1월 국가위험도 평가회의에서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단계 상향조정한 바 있으나 S&P 등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은 추가적으로 신용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있음.

선임조사역 김찬수(☎02-3779-5703)

E-mail: avik@koreaexim.go.kr